



내일, 부처님 오신 날 '오색연등'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28일 오후 광주 서구 무각사에 오색연등이 피란 하늘과 어우러져 있다. 봉축법요식은 코로나19로 인해 한달 뒤인 5월 30일로 미뤄졌다. 사진은 360도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했다. ▶충무원장 인터뷰 20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방사광가속기 국토균형발전위해 전남으로”

전남도, 500만 호남인들 염원 담아 오늘 유치계획서 제출
국내 가속기 5개 영남·충청에 쏠려...이젠 분산 배치해야

전남도가 청년·학생·과학인·학계·산업계 등 500만 호남인의 염원을 담아 29일 정부에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계획서를 제출한다. 정부의 부지 선정 기준이 수도권 인접지역에 유리하다는 일부의 우려를 극복하고 1조원대 대형 국책연구시설을 유치해 전남 미래 첨단과학산업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10면〉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전남도의회가 의결한 '전남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및 재정지원 확약 동의안'을 넘겨받은 것을 끝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하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부지 유치 계획서 준비를 마무리했다.

전남도는 유치계획서와 첨부 서류 등을 29일 인편으로 과기부에 접수하고, 다음달 7일께 발표 예정인 우선협상 대상지 선정 결과를 500만 호남인들과 함께 지켜볼 계획이다.

전남도는 정부의 구축 계획 발표 이전인 1년여 전부터 다목적(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유치, 전남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져왔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의결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에 방사광가속기 구축 계획이 포함되는데, 전남의 에너지신소재·의료바이오 산업, 광주의 인공지능(AI)·자동차 산업, 전북의 탄소 산업 등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계는 물론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전북대·조선대·목포대·원광대 등 대형연구시설이 전무한 지역 대학의 유치 의지도 못지 않았다. 전남도는 충북 오창, 강원 춘천, 경북 포항 등 다른 3개 지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 유치 전략으로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웠다.

산업화 이후 줄곧 낙후돼 지난 50년간(1970~2018년) 영남권은 364만명, 충청권은 137만명의 인구가 늘어날때 호남권은 122만명 감소한 '지역간 불균형'을 강조할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책연구시설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 호남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가속기 5개가 영남·충청권에 모두 쏠려 있다는 점도

전남을 비롯한 호남권 전체가 4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나선 이유로 작용했다.

현재 운영 또는 구축 중인 가속기 5기가운데 포함엔 2기(3·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운영 중이고, 경쟁자인 충북 오창의 경우 불과 39km 떨어진 대전에 1조4000억 원짜리 중이온가속기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경주에는 2012년 양성자가속기가 들어섰고, 부산에는 2023년까지 중입자가속기가 구축된다. 해외 주요국이 지진 등 재해 위험으로부터 대형국책연구시설을 지키려고 분산배치하는 것과도 동떨어진 정책적 결정이었다.

호남권을 제외한 영남·충청권에 대형국책 연구시설인 가속기 5개가 쏠려있고, 이마저도 상당수가 포함공대 발전 등 정책적 결정에 따른 입지 선택이었다. 산업화에서 소외된 호남은 정권이 수차례 바뀌었지만 대형국책연구시설 등 미래먹거리 산업의 전초기지조차 배려받지 못하고, 기술 여건 운동장에서 타지역과 유치가 사활을 건 싸움을 벌여야하는나는 울분이 지역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배경이다.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할 한 달도 안 돼 230만명의 서명을 받아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호남지역 3개 광역단체와 500만 호남인의 유치 의지와는 다르게 과기부의 부지 선정 기준이 수도권 인접지역에 기울었다는 점은 막판까지 논란이 됐다. 100점 만점에서 50점이 부여된 입지조건 분야의 경우 6개 세부 평가항목에서 ▲시설 접근성 및 편의성 ▲현 자원 활용 가능성 ▲배후 도시 정주여건(인구 등) 등 3개가 위치나 접근성 위주로 구성됐다. 이는

명칭한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약조건에서도 500만 호남인의 염원을 담아 신중하게 유치계획서를 준비했다"며 "산업화에서 소외되고, 대형국책연구시설 배치에서 소외된 호남에 4세대 방사광가속기가 유치되도록 지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해 발생하는 X-선을 이용해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물질의 기본입자를 분석하고 관찰하는 초정밀 대형연구시설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의료·바이오·에너지·소재 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신기술과 신시장을 창출하는 시설이다. 정부는 오는 2028년 운영을 목표로 2022년부터 국비 8000억원 등 1조원대 사업비를 투입해 4세대 방사광가속기 및 부속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3·1 마라톤 6월 21일로 연기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따라

2020년 5월 3일(일)로 연기했던 3·1절 전국마라톤대회를 오는 6월 21일(일)로 변경해 치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5월 5일까지) 방침에 따라 참가선수 및 가족, 대회 관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대회본부는 최대한 빨리 대회를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아직까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기에 부득이하게 대회일자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참가자 여러분의 너그러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일정 변경으로 인해 참가가 어려우

알립니다

신 분들에게는 참가비 전액을 환불처리 해드리겠습니다. 참가취소 및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대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비밀글로 환불받으실 참가자명, 연락처, 계좌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신청이 없으신 참가자는 대회 일정 변경과 관계없이 참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불신청 기간은 2020년 5월 8일(금)까지이며, 기간 내에 환불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조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길 기원하며, 변경 일정에 맞춰 행사준비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행사 당일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달림이 여러분들과 대회장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대회 일정 변경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본 대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참가신청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光州日報社

한전공대 첫 이사회 602억 법인예산 확정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 지원 근거 마련

학교법인 한전공대 첫 이사회가 올해 602억원의 법인예산을 확정하고 방사광가속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이사장 김중갑)는 28일 오전 한국전력 나주 본사에서 제1차 이사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학교법인 예산과 정관 변경안, 이사회 운영규정, 법인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한전공대 법인예산은 602억원으로 확정됐다. 4년편제가 완성되는 2025년까지 대학 설립에 6210억원, 운영에 2079억원 등 모두 828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한전은 추산하고 있다. 한전 측은 개교까지 395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전공대 이사회에는 외국인 이사 2명이 선임돼 기존 7명에서 총 9명의 이사가 활동할 방침이다. 현재 이사회는 법인 7명의 이사 2명의 감사를 포함, 총 9명의 임원을 두고 있다.

지난해 9월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장은 김희천 한전 경영지원부사장, 이종환 한전 기획변화처장,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 송성진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부총장, 유기봉 고려대 공과대학 석좌교수, 박기영 순천대 생물학과 교수 등이다. 감사는 이정희 전 한전 상임감사와 윤의준 서울대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이 맡고 있다.

이날 이사회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용빌딩인 구축과 전문인력 확보 등 호남권 유치를 위한 참여와 지원계획의 근거도 세웠다.

한편, 10명 후보군으로 압축된 총장 인선은 상반기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경제활력 UP

코로나19 위기 극복 광주시가 시민과 함께합니다!

- 1 소상공인 특례보증**
무보증, 무담보, 무보증료로 3천만원까지 드립니다.
- 2 공공요금 인하**
공공요금 인하, 착한임대인을 지원합니다.
- 3 3대 생계자금**
가구당 최고 100만원을 드립니다.
- 4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자 부담금을 전액 도와 드립니다.
- 5 시민 1만2천여명 채용**
생활형 공공일자리로 힘이 되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참조(www.gwangju.go.kr)